

2022년 05월 08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에베소서 6장 2~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78(통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4절(신약p.316)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 말씀선포 / 행복한 삼각관계

어느 마을에 집안이 늘 평안한 집과 불화가 자주 일어나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화한 집주인은 화목한 집주인에게 가정이 화목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때 화목한 집주인이 “만일 당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소.” 라고 말하자 제의에 따르기로 하고 두 사람은 먼저 가정이 불화한 집으로 갔습니다. 불화한 집주인은 식구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지붕으로 몰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식구들은 모두 아버지를 반대하고 아무도 아버지의 말을 따라주지 않을 뿐 아니라 소를 지붕 위에 몰아 올리려는 이유를 묻기에 바빴습니다. 이를 본 화목한 집의 주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식구들을 모은 후 소를 지붕으로 몰아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식구들은 두말 없이 사다리를 지붕에 걸친 후 멍석을 사다리 위에 펴고 소를 지붕 위로 올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가정의 화목의 비결은 바로 질서와 순종에 있었습니다.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자녀는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 오늘 본문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고 했습니다.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은 언 듯 같은 의미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전혀 다른 두 뜻이 있습니다. 먼저 순종이라는 말은 “순할 순에 따를 중”으로 “순수하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강제성 보다는 자율성이 부여됩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복종은 “못 복에 따를 중”으로 “명령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와 같이 내가 좋든지 싫든지 관계 없이 자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심부름 할 아이를 구함” 이라고 풋말을 붙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년은 좀 허약해 보였습니다. 주인이 묻기를 “어린 친구 자넨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묻자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시키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러자 기특하게 여긴 주인은 “응 좋아 그러면 됐네.” 하며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순종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은 매우 쉬워 보이지만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드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 부모에 대한 순종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열심히 하지만 뒤따르는 실천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 주고 시키는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게임 앞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 무기력해 집니다. 시켜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자식을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종종 “자식 키우기 정말 힘들어.” 라고 한숨 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키우기 힘든 자녀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키우기 편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공격합니다.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보답이 곧 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언급되지만 특별히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셋째, 부모에 대한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대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잘되고, 둘째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은 모두 불효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는 생각의 차이에 있지 물질의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이정도면 됐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사람에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복된 자로 만드시고 신앙과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본문 4절입니다.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주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요, 장차 기업을 얻을 후사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걸핏하면 성경이란 무기를 들이대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3절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또 시작이구만” 속으로 생각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하면 남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고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망하려고 기업을 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가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기업을 이끌어 가는 사장과도 같습니다. 잘 성장시키는 임무가 부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입니까?

첫째, 자녀를 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기분 좋아질 말씀입니다. 갑자기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부모가 자녀의 비위를 맞춰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싶으면 격하게 반응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자녀들의 탈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태도는 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자녀 또한 부모의 있는 그대로 존경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정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적절히 징계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보면 매를 들거나 징계를 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서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초달이란 “회초리 초에 때릴 달”입니다.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매를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잘못을 자녀가 했더라도 징계를 가한 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적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말씀 안에서 자라난 자녀는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녀의 인생은 실패했을 때 포기해 버리는 실패자의 원인이 됩니다.

분명 행복의 비결은 물질,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잠언 15장 16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 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는 자녀를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잘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559(통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폐 회 / 주기도문